

건강한 태닝 톤 연출하는 브론즈 메이크업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는 태양 빛에 어두워진 피부 톤이 회복되는 동안 브론징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다. 평소 사용하던 파운데이션 톤을 낮추고 세이딩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면 한층 건강한 톤을 뽐낼 수 있다. 태닝 톤 연출하는 브론즈 메이크업을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co.kr)이 소개했다.

■ 나이트 아웃을 위한 아이 브론즈 룩

브론즈 하면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이 떠오르지만, 섹시미 풀풀 풍기는 브론즈 메이크업은 밤에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브론저를 새도처럼 사용하면 그의 수를 100% 충전할 수 있기 때문.

시며 패이 낭낭하게 든 브론저를 눈두덩 전체에 바르는데,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은 눈과 눈썹 사이가 멀기 때문에 과감히 눈썹에 닿기 직전까지 넓게 발라도 괜찮다. 넓은 새도 브러시를 이용해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려레이션하는 것이 생명.

여기에 아이라인만 그리고 마무리해도 충분하지만, 글리터를 중앙에만 더해주면 화려함이 2배! 브론즈 무드를 더하고 싶다면 파운데이션에 브론저를 살짝 섞어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늘려주고, 투명도 높은 시어한 텍스처의 브론즈를 블러셔처럼 광대뼈에 넓게 한 번 더 얹어주자.

■ 쿨 톤을 위한 쿨 브론즈 룩

'브론즈 메이크업'의 대명사인 찐~한 오렌지빛 피부는 쿨 톤과 상극이다. 요즘은 붉은 기 쏙 빠진 핑크나 베이지 톤의 브론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화장대 구석템인 오렌지 브론저를 심폐 소생하고 싶다면 브론저 위에 핑크 블러셔를 레이어링해 보자. 쿨한 톤의 핑크 블러셔를 사용하면 따뜻한 색감이 중화되며 얼굴이 동동 뜨는 어색한 느낌을 줄일 수 있다.

블러셔를 전하게 발색하기보다는 노란 기를 커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가 부드럽고 텐션이 적은 파우더 브러시나 팬 브러시를 이용하자.

여기에는 핑크 빛을 내뿜는 하이라이터와 쿨 톤에 착붙이면서 여름 바이브까지 더할 수 있는 시원한 블루 톤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주면 쿨 내 풀풀 브론즈 룩 완성!

사진=코스모폴리탄

HUNNY BROWS

Vivian OC/LA Microblading 반영구
후센스있게! 옛지있게 10년 젊어지세요!★

3D눈썹/속눈썹 뷰티문신
입술문신 아이라인

Certified/Licensed PMU



909.837.5674

7041 West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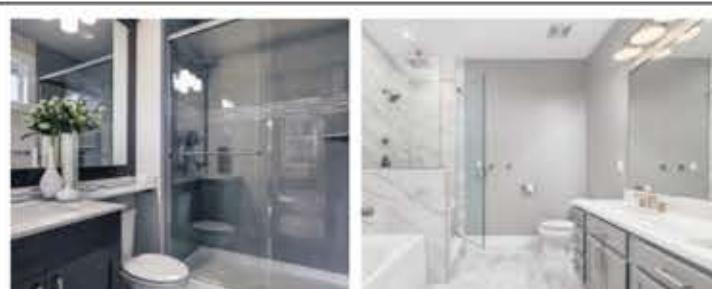
JSK 건축, 플러밍



Lic #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

제이김

714.249.5469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



캐비넷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 가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